

축 사

불기2560년 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로 불자님들과 참석하신 내외귀빈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불교천태종의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 탄신 104주년을 맞는 뜻 깊은 날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모든 종단과 더불어 축하를 드리며, 법석을 준비하신 천태종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모든 사부대중께도 경축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의 청명하고 희망의 기운이 이곳 소백산 구인사에 가득합니다. 여러 종단의 불교 지도자와 내외귀빈들이 함께 하신 가운데 봉행되는 이 봉축 법석이 한국불교와 천태종의 발전에 희망의 원력으로 전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상월원각 조사께서는 우리 민족이 국권을 상실하고 어둠에 빠져 있는 암울한 시절에 출생하시어, 크고 넓은 원력을 품으시고 출가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완성을 위한 수행이 아니라, 일체중생의 복락과 해탈지건을 위한 큰 원력을 세우시고 정진하여 이곳 구인사에서 큰 가람을 이루셨습니다.

한 송이 연꽃 향기가 만 리를 가듯 조사스님의 법향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천태종의 교세가 확장되고, 다져지며 더불어 한국불교의 위상과 사회적 역할 또한 격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천태종은 주경야선의 종풍으로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라는 지표로 표방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지난해 천태종은 구인사 개산 7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행사를 통해 많은 불자들에게 감동을 전해주었으며, 상월원각 조사스님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술문명과 생활문화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대의 수승한 유산을 수행의 지표로 삼아 사회와 함께 호흡해 가야 할 것입니다.

시대를 이끌어갈 사표가 되기 위한 범불교적 노력이 절실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한 해안으로 진정한 일꾼을 선택하여 국민통합으로 사회발전과 남북의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기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정진하고, 함께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 가기를 기원하며, 오늘 뜻 깊은 봉축의 법석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두루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불기 2560(20160년 1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 승 합장